

축 사

오늘은 수운 최제우 대신사께서 무극대도(無極大道)를 받고 시천주(侍天主)의 진리를 깨달아 동학을 창도한 천도교 최대의 명절입니다. 천도교인 여러분과 축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150여 년 전 우리 사회는 열강의 간섭과 침탈이 시작되면서, 민족의 명운은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수운 대신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을 전파하며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자며 민족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가르침을 펼치며 우리 민족의 사상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은 유례를 찾기 힘든 발전을 이루면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참다운 삶이라는 사회와 시대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분단의 아픔은 전쟁의 위협을 상존하게 하고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양극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분열과 갈등이라는 과보를 남기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결국 환경과 생명사상의 훼손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하는 물질주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이기주의, 그리고 나만이 옳다는 독선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욱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천도교에서 말하는 낡은 관습과 편견을 버리는 자기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천일기념일을 참다운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보국안민과 포덕광제에 힘써 주시기길 바랍니다.

수운 대신사의 가르침은 종교를 떠나 우리의 삶이 가져야 할 정신적 지표와 많은 부분이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랫동안 민족의 정신사를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천도교와 이웃 종교들이 지금 이 시대로부터 부여

되는 사명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과 인류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도하는 것, 그리고 이 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동시에 그 가르침을 널리 펼쳐가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웃 종교간에도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교령님의 지도하에 많은 새로움과 발전의 초석을 다지신 덕화가 많은 분들에게 두루 전해지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포덕 155년 천일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불기2558년 4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